

줄줄이 '착한가격' 간판 떼는 업소들 “봄길 걸으며 한중일 교류 꽃 피워요”

도내 착한가격업소 120곳으로 2017년 대비 19곳 ↓ 물가·인건비 부담에 경기침체 여파 더해져 감소세 행정시 “폐업·업종변경 사유 많아… 운영실태 점검”

제주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인건비 부담에 경기침체 여파까지 더해지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120개소(제주시 94개소, 서귀포시 26개소)다. 2016년 말 130곳, 2017년 말 139곳에서 감소 추세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로 지난해에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공모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최근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다 인건비와 각종 물가 상승 등으로 시중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버티기 어려워 가격을 올리거나 업종 변경, 폐업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저렴한 가격에 비해 행정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14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는데 제주시에서 111개소, 서귀포시에서 38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 많은 것 같지만 기존 착한가격업소 중 재신청 업소를 제외하면 신규 신청은

38개소(제주시 25개소, 서귀포시 13개소)에 그친다.

제주도는 이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제주도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교부 ▷종량제봉투 지원과 상하수도료 등 요금 보조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및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 일부 지원 ▷홍보와 컨설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정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업소 폐업이나 업종 변경 사유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모니터단을 구성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시팀, 中 다렌시 찾아 아카시아꽃 걷기대회 참가 제주 유채꽃 대회 홍보하며 참가국과의 우정·화합 도모



제17회 중국 다렌시 아카시아꽃 국제걷기대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중국 요령성 다렌시 성해광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각국의 꽃을 주제로 한 '한·중·일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 리그' 마지막 순서로 열린 중국 아카시아꽃 국제걷기대회에 한국팀 대표로 서귀포시팀이 참가해 평화와 화합을 다지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7회 중국 다렌시 아카시아꽃 국제걷기대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중국 요령성 다렌시 성해광장(총 면적 176만㎡) 일원에서 5km, 10km, 20km, 30km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행사 둘째 날인 지난 18일 성해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귀포팀과 일본 구루메시팀, 유럽 등 세계 각국의 팀 등 30만명이 참가해 건강과 우정을 도모했다. 특히 5km 구간 코스

에 참가한 서귀포시팀은 성해광장을 출발해 약 1시간 가량 코스를 걸으며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양윤경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중국과 한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을 각 도시를 상징하는 꽃을 매개로 봄길을 걸으며,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정과 화합의 꽃이 피워 왔다”면서 “앞으로도 교류의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어나가길 기대하며 각국의 걷

기대회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대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3개국은 2006년 평화와 화합을 다지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기 위해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 리그'를 결성하고 매년 3월 서귀포시 유채꽃 걷기대회, 4월 일본 구루메시 철쭉꽃 걷기대회, 5월 중국 다렌시 아카시아꽃 걷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장수의자 교차로 곳곳 설치

제주시는 어르신들과 보행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주요 교차로 주변에 장수의자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이 있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50곳에 장수의자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제주어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장수의자 주변에 '쉬명가명' '쉬엇당갑서' '잇당갑서' 등의 제주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붙인다. 김현석기자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에 들어설 A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21일 서귀포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시공사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태윤기자

도, 공공 와이파이 정보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 와이파이(Wi-Fi)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이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9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홈페이지에는 공공 와이파이 위치정보, 와이파이 빅데이터 분석 정보, 공공 와이파이 품질개선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이 주기능으로 포함된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8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제주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4200여개를 설치해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고대모기자

입주 거부로 번지는 부실시공 의혹

서귀포 A아파트 예비입주민 집회 열고 계약 해지 등 촉구

속보=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에 들어설 A아파트의 예비입주자들이 시·공사·시공사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본보 5월 8일자 3면 보도)한 데 이어 21일 서귀포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입주민을 기만하는 시·공사·시공사는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며 입주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예비입주자들은 “물이 새는 아파트가 무너질까 무섭

다. 입주를 거부한다”며 “시공사는 부실·날림시공으로 인한 하자 사항을 덮어버리고 보수여부 확인을 위한 입주민들의 출입도 통제한 채 준공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공사·시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아파트 시행사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보수했다며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각종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A아파트를 방문해 현장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난항 겪던 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원 건물 매입비 등 확보로 속도 낸다

도, 추경안에 56억원 반영

속보=서귀포시가 추진중인 제주지역 첫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21개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전담형은 단 한 곳도 없다.

시는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을 위해 최근 남원을 소재 민간 요양 시설 매입을 완료,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민간 건물 매입비 중 일부인 국비 14억원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56억원의 지방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본보 2월 8일자 3면 보도)을 겪던 시는 제주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이번엔 건물 매입을 마쳤다. 매입 건물은 남원을 소재 대지 6699㎡, 연면적 1821㎡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시는 이달 말 타 시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반기 리

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정원 50명 수용 규모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배치돼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4등급자, 5등급자 순이다. 다만 2등급자 중 심신·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경우는 일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내년 치매전담형 요양 시설 개원에 이어 2021~22년에는 여유 부지에 추가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도 계획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문미숙기자

올해부터 냉방요금도 지원

도, 취약층 위해 신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바우처와 더불어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수

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냉방바우처, 동절기 난방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

(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가구이다.

냉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고대모기자



사전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자리에서 희망을 찾다! 2019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2019.5.28.(화) 13시 / 제주한라체육관

문의사항 : 064-757-2165 홈페이지 : www.jejuhr.or.kr

이번 박람회는?

기업현장 채용면접/공직설명회	4차산업 신기술 체험	매력적인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기업 48개 참여 ■ 공직설명회 (인사혁신처, 도청, 도교육청) ■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 ■ 공공일자리 채용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채용면접체험(마이디스아이티) ■ AI 자기소개서 분석체험(코멘토) ■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차량전시(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특강(서수민 전개그콘서트·1박2일PD) ■ 도전! 직업퀴즈 골든벨 ■ 구직자 맞춤형 취업멘토링 ■ 기업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 ■ 세무+법률 무료상담

당신의 꿈과 함께할 기업들을 직접 만나러 오세요!